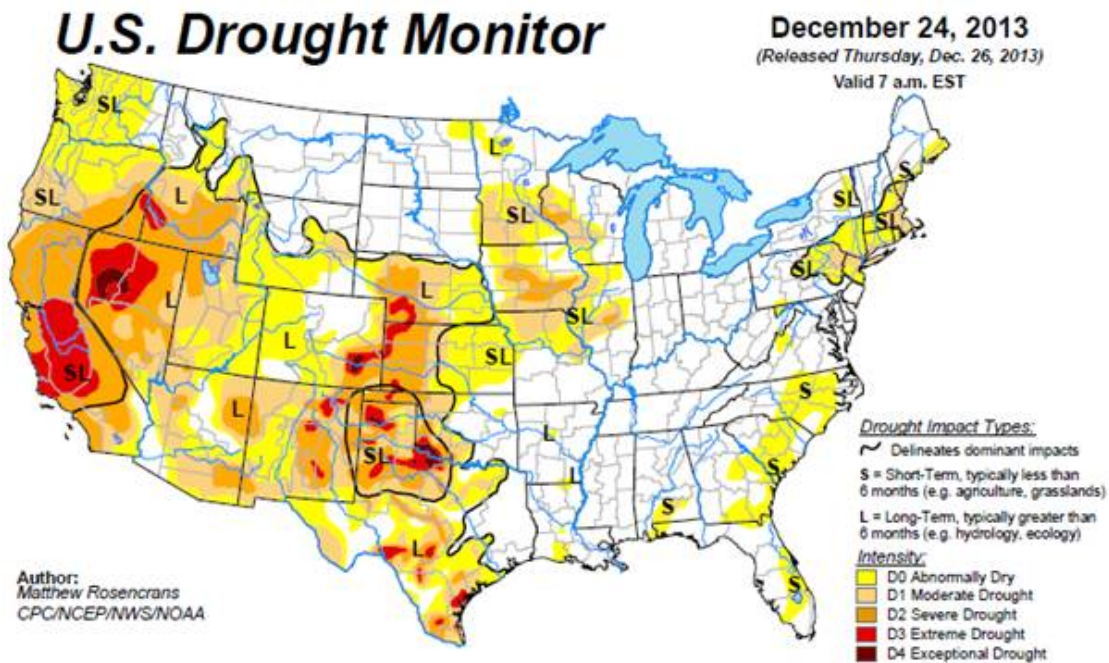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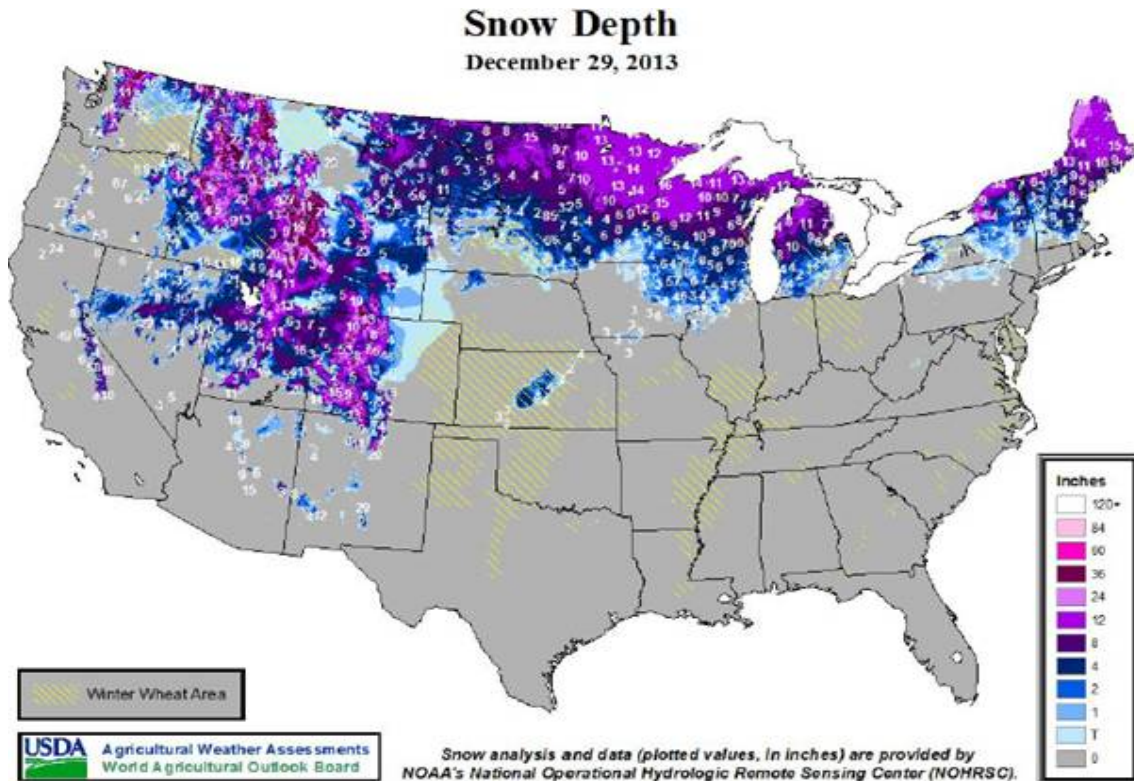
※ 12월 3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0, No. 53)

□ 미국 기후 현황(12/22~12/28)



주초에 겨울 강수량이 Great Lakes 지역부터 New England에서 계속되었다. 얼음 비 등으로 인해 축적된 강수량은 특히 미시간과 북부 New England 일부 지역에 지장을 주었다. 남동부 지역은 주초에 비가 내렸으며, 12월 28~29일에 다시 비가 내렸다. 두 종류의 폭풍이 결합되어, Mississippi 걸프해, Alabama, 서부 Florida, 남부 Appalachians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미 동부의 광대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1인치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전국적으로 지속되었으나, 남부 텍사스 지역과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북부 및 중부 로키 산맥 지역에서는 주 후반 소나기와 눈이 내리기도 하였다. 서부 지역은 여전히 겨울 강수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일부 지역 - California와 Great Basin 지역- 은 3년 연속 겨울 가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북부 평야지대와 중서부 지역의 경우 12월 23~24일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30°F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겨울 농업 벨트 지역의 경우에는 영하의 온도를 기록한 곳이 없었다.

□ 농업 현황 요약(12/23~12/29)



한 주간 대부분의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남동부 지역의 경우에만 한 주간 1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Alabama, 북부 Florida, Georgia, 남부 Carolina)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Mississippi강 계곡과 남부 대평원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12/22~12/28)

- 유럽: 동부 유럽의 건조하고 온난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중부와 서부 유럽의 농업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천천히 이동하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광대하고, 국지적인 소나기(10~60 mm)가 서유럽에 내렸고, 프랑스 지역의 후기 여름작물의 수확을 지연시켰지만, 이베리아 반도의 가뭄에 대한 걱정을 완화시켰다. 남부 유럽의 경우, 발달된 폭풍으로 인해 폭우가 내렸으며 북부 이탈리아의 경우 산악지역에 눈(10~75 mm)이 내렸다. 이로 인해, 표토층의 가을 밑에 필요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고 온대성 작물의 관개를 향상시켰다. 영국과 북부 프랑스와 북부 독일 지역에 내린 소나기는 가을 밑과 유채 재배를 위한 표토층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었다. 주 후반 그리스에서 발생한 폭풍은 국지적으로 40mm이상의 비가 내려 야외작업이 지연되었으나, 동유럽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평년대비 기온보다 평균 5~7°C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소련(서부): 건조한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월동 밀의 생육 조건을 유리하게 유지하게 하였다. 서부와 북부의 곡창 지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대비 최대 8°C까지 높았으며, 동해

의 위험을 최소화시켰으나, 이 지역의 침식을 천천히 진행시켰다. 주요 남부 가을 밀 지역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어 평년대비 기온이 높아서(평년대비 1~4°C 이상), 얇은 적설량을 기록한 대부분의 지역의 눈을 녹였다. 주말에는 불가와 동부 중앙지역의 작물만이 5~20cm의 눈이 내려 적절히 보호되었다.

- 호주: Queensland와 New South Wales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면화의 재배에 요구되는 관개 요구 사항을 증가시키는 동안, 수수와 같은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 작물의 토양 수분을 감소시켰다. 주요 여름작물의 생산 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적으로 1~2°C 정도 높았으며, 최대 기온은 30°C 중반을 기록하였다. 중부와 남부 New South Wales 지역에 내린 소나기(10-25 mm, 국지적으로 40 mm)는 여름작물에 혜택을 주지만 후기 겨울 곡물 수확에는 방해가 되었다. 호주 남동부와 서부지역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겨울 곡물의 수확을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 아르헨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더운 날씨로 인해 중부 아르헨티나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옥수수 열에 민감한 여름작물 등의 생장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주간 온도는 평년대비 평균 4~6°C 높았으며, La Pampa, 서부 Buenos Aires, 남부 Cordoba와 Entre Rios 지역의 경우 난 최고 기온이 40°C에 육박하였다. 비와 폭풍과 고온으로 인해 데워진 날씨를 잠시 안정시키기도 하였다. 총 강수량은 남부 Cordoba와 San Luis 에서 남서부 Buenos Aires의 경우 25mm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다른 지역은 10mm 미만을 나타냈다. 여름 곡물 및 유지작물의 파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초기 파종한 옥수수는 생장이 진행되고 있었다. 덥고 건조한 날씨는 북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4~6°C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최고 기온은 수일 동안 40°C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아르헨티나에서는 여름 곡물, 유지작물, 면화의 스트레스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강수량과 추운 날씨가 요구된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12월 26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은 각각 77%, 81%로 전년동기 대비 살짝 뒤쳐진 상황이다. 또한, 가을 밀의 수확은 87%(전년동기 대비 16%p 앞섬) 남부 Buenos Aires 지역의 주요 생산지역에서는 수확이 대체로 마무리 되었다.
- 브라질: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남부 지역에 지속되었으며, 대두와 옥수수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감소시켰다. Rio Grande do Sul에서 남부 Sao Paulo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4°C 정도 높았다(주간 최고 기온은 30°C 중후반을 기록하였다). 이 지역에 나타난 계절상 맞지 않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2주째 지속되어, 미숙한 곡물과 유지작물의 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가 내릴 필요가 있다. Sao Paulo의 주요 사탕수수 재배 지역의 경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게(25 mm 미만) 내렸지만, Mato Grosso do Sul에는 폭우가 내렸으며, 옥수수와 대두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시켜줄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북부 지역(동부 Mato Grosso, 남부 Bahia, Espirito Santo)의 강수량은 평년대비 많이(50-150 mm) 내렸으며, 대두, 면화, 타작물의 생육조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지난주와는 반대로, 알맞게 건조한 날씨는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에 우세하였다. 이 지역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좀 더 따뜻한 지역인 Mato Grosso와 Tocantins의 주간 최고 기온은 30°C 중·후반이었다.